

# 영산강 3백 50리(1)

김 경 수  
(향토지리연구소장)

## I. 영산강의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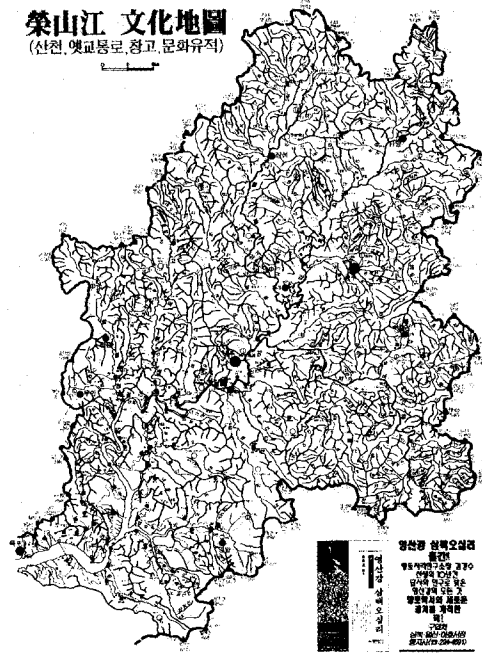
### 1. 호남정맥의 서쪽지락을 타고 내린 강

영산강은 호남정맥의 서편을 흐르고 있다. 백두대간의 남쪽인 전라북도 장수 영취산(1076m)에서 갈라져서 남북으로 뻗은 멧밭이다. 북쪽 울타리는 전라북도와 도계를 이룬 입암과 갈재(蘆嶺)에서 불갑산(516m)으로 치달리는 영산북기맥이고, 남쪽 살피는 탐진강과 섬진강의 셋강인 보성강이 땅금을 대고 있는 삼계봉(503m)에서 남서쪽으로 이어지는 영산남기맥이다.

영산강은 큰물줄기 3개를 비롯하여 대략 1천3백45개 물줄기가 나뭇가지 모양을 이루고 총 유로연장은 2천7백40킬로미터이다. 이중 법정하천으로 지정된 하천은 185개 갈래에 1천4백72미터이다. 유역면적은 광주광역시와 전남의 2시 6군에 걸쳐 3천4백29평방킬로미터로 광주를 포함한 전남땅의 3할 썸을 차지하며, 인구는 절반 썸인 1백80만명이 살고 있다.

### 2. 영산강의 발원지와 명칭유래

영산강에서 한줄기로 가장 긴 강은 황룡강 쪽으로 병풍산(822m) 북녘에서 영산호 하구



영산강 문화지도

독까지 139킬로미터 썸이다. 그러나 극락강줄기를 본류로 삼아 영산강의 발원지를 담양 용면 용연리 가마골 용추봉(584m) 남쪽 기슭이라고 건설부 하천편람에는 제시하고 그 길이를 136킬로미터로 공표했다.

필자는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수차례의 답사와 함께 1대5천분의 지형도를 통해 확인해 보니, 골짜기 구성이나 수량에 있어서 뿐만 아니



영산강의 시원(始原)이란 표식들이 있는 용소(龍沼) 대기 이란 소(Pool)를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해서 용소라는 이름을 많이 붙인다. 지름 20미터의 새파랗게 물이 고인 소에 물이 떨어지는 물길바위는 용이 등천하는 모양이다. 옛날 여기에 사당이 있어 봄·가을로 제사 지냈으며 가을였을 때 제를 올리면 이 소에서 올라간 용이 비를 내려주었다고 최남성의 대동지명사전에 나와 있다.

라 시냇물의 길이에서도 6백미터가 더 긴 청소년 야영장의 옛 구암사터에서 5백미터 북쪽골인 치재산(533m) 동쪽기슭을 발원지로 삼는 것이 타당할 성 싶다. 실제 가마골 본줄기에 해당하고 용소라는 폭포와 함께 넓은 소(pool)가 형성되어 있으며 영산강의 시원 표식들도 세워져 있다.

영산강에 대한 명칭은 본류에 여러개 있으며, 지류에 대해서도 수십개가 있다. 예를 들면 대

동여지도상에는 본류 10개, 지류 26개가 표기되어 있다. 실제 읍지나 문집 등 다른 문헌들을 보면 구간별로 더 많은 강이름들이 나온다. 이렇듯 본류와 지류의 명칭은 유로, 하상상태, 조수유입범위 등이 빈번하게 변해왔기 때문에 그 이름 내력을 캐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본류에 대한 강이름을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을 통해서 살펴보면, 나주 동쪽에서는 ‘광탄강(廣灘江)’이라 했고 영산포 부근에서는 ‘남포강(南浦江)’ ‘금강(錦江)’ ‘목포강(木浦江)’이라 했으며, 강폭이 넓어지는 나주·함평계에서는 ‘사호강(沙湖江)’으로, 남하해서 나주·무안계에서는 유로가 심하게 곡류하므로 ‘곡강(曲江)’이라 불렀다.

금강이라고 칭한 까닭은 통일신라 때 나주의 이름 금성(錦城)에서 나온성 싶다. 이 금성 옆을 통과하는 강을 금천 또는 금강이라고 부르고, 건너는 나룻터를 ‘금강진(錦江津)’이라 칭했을 가능성이 높다.

남포강과 목포강이란 이름은 고려 때 나주가 목(牧)이란 행정단위가 되면서 목의 포구라 해서 목포강 또는 목의 남쪽 포구라 하여 남포강이라 칭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사호강이란 이름은 영산강이 하류에 이르면 대단히 양양해 영산강과 함께 쓰여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신경준(1712 1781)은 『산수고』에서 전국이 12개의 산과 하천의 명칭을 개괄하면서 다섯번째로 ‘사호(沙湖)’라고 기록했으며 『증보문헌비고』여지도 산천편에도 같은 기록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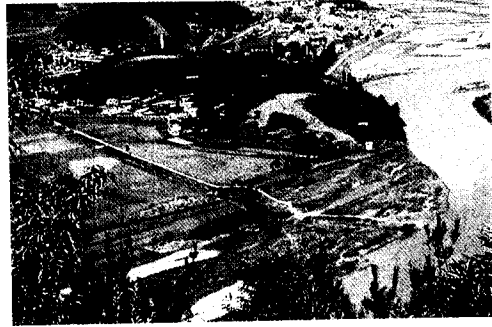
그러면 오늘날과 같이 유역권내를 일반적으로 영산강이라고 일컬어진 때는 언제부터인가. ‘영산(榮山)’이란 지명은 본디 흑산도(黑山島)에 설치되었던 현(縣)에서 유래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등 기록에 따르면 고려말엽 일본해적들이 남해안을 노략질할 때 흑산도 사람들이 나주 남쪽 남포강가에 피난와서 살았기 때문에 이곳을 ‘영산현(榮山縣)’이라 했다. 이 영산현의 명칭은 아마도 흑산도를 영산도(永山島)라 했던

당시의 지명을 옮겨온 듯 하다. 지금 영산도는 대흑산도 동쪽 3.2킬로미터거리에 있다. 또한 무인도로 외영산도와 내영산도가 바로 방파제로 연도(連島)뒀을 미루어 생각하면, ‘永山島’는 ‘榮山島’의 잘못된 기록이 남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영산현은 1364년(공민왕12)에 영산군으로 승격되었으나 조선시대 초 행정구역의 통폐합으로 직촌화되어 없어졌다.

이후 영산군터는 행정기능은 상실되었으나 영산조창(榮山漕倉)이 설치되어, 1512년(중종7) 영광법성창으로 그 기능이 옮겨질 때까지 사회·경제적인 면에서 그 중요성을 담고 있었다. 당시 영산조창은 호남 17고을의 세곡이 모였으므로 이 고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국가시설이었을 터이다. 따라서 영산창 앞을 흐르는 강을 영산강(榮山江) 또는 영강(榮江)이라 불렀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에 대한 내용은 「청구도(靑丘圖)」와 「동여도(東輿圖)」에서 엿볼 수 있다. 나아가 『태리지』에 ‘靈山江’, 『목민심서』에 ‘壽水」 「전라도지도」에 ‘英山江」과 ‘映山江」이라는 명칭이 나타나고 있어, 글자는 다르나 소리는 현재의 이름과 매우 흡사했다.

### 3. 이물 저물 모아져 이른 하구둑

담양 가마골을 출발한 영산강이 광주에 이르던 극락강의 이름으로 송정리 비행장 남쪽에서 병풍산과 입안산정에서 나온 황룡강과 만난다. 나주 금천에 이르면 화순 이양 쌍봉사 계곡 천리난골에서 발원한 지석강과 합류, 광탄(너뽕이여울)이 된다. 이어 나주를 지나 다시면 석관정에서 장성 태청산에서 발원한 고막원천이 합강되고, 함평 사포로 도달하면 영광 군남면 금산에서 나와 함평읍을 거친 함평천과 만나 사호강이 된다. 나주 동강면 곡천과 무안 어오지(느리지)에서 굽어 곡강이 되어 남해안으로 나가 무안 염소성(양도:하구둑 축조이전 하구점)에서 영암 신북면 백룡산에서 나와 반남 시종을 적시고 남해안 앞을 지나온 삼포강을 더한다.



영산강 이름의 기원이 되었던 나주시 영강동 태촌 뒷산의 영산창터(榮山倉址) 고려말부터 운영되었던 漕倉으로 1390년(공양왕 2) 9월 倉城했다. 1989년 목포대 조사팀이 찾아낸 성터흔적은 동벽 227m(內高 0.8~3m·外高 1.5~4m), 남벽 90m(內高 1.5~3m·外高 4.5m), 북벽 62m(內高 0.7m·外高 2m)였다. 이 土城터는 북쪽이 노출된 단면에서 지름 3센치이하의 작은 자갈과 흙을 섞어 쌓은 판축기법을 보이고 있다. 정상(43m)에는 1983년 세운 화원사가 있다.

남해만(영산지중해)은 간척되어 갯골이 강줄기로 변했다. 조수가 들어오던 이곳은 덕진, 서호쪽 물도 모아져 주룡협곡에 이르면 낙조류 때는 유속이 10노트나 되었다. 협곡을 나서면 남창천과 망월천도 모아져 무안 삼향과 영암 서호를 잇는 4천3백51미터의 하구둑에 이른다. 양도에서 20킬로미터이고 목포 삼학도까지는 6킬로미터 좁은 곳으로 둑길은 국도 2호선이 지나면서 새로운 관광명소로 등장했다. 그러나 조수(潮水)의 차단선이 되어 본래 영산강의 모습을 크게 달라지게 했다. 찾는 이들은 맛있는 물고기와 조개가 사라지고 소강하던 배의 모습을 볼 수 없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늘 지적하고 있다.

### 4. 땅죽보와 생김새

1) 영산강 큰골이 된 대보화강암 덩어리  
영산강 유역의 땅은 얼마나 오래 되었을까?

선조들의 역사를 아는 것 못지 않게 조상들의 영화와 애환이 깃들어 있는 영산강 유역에 대한 땅의 역사를 아는 것도 영산강을 사랑하고 아끼는데 보탬이 되리라 생각된다.

영산강 유역의 땅속층(地層)은 시생대 편마암류, 고생대 변성퇴적암류, 중생대 대보화강암류, 화산암류, 불국사관입암류, 그리고 신생대 제 4기층으로 짜여 있다.

영산강 유역에서 가장 오래된 땅은 지금으로부터 10억년 이전의 선캠브리아기에 생긴 편마암 계통으로 화강질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암석들은 기존의 암석이 땅속 깊은 곳에서 높은 압력과 열을 받거나 새로운 화학성분이 들어가거나, 없어져서 이뤄진 일종의 변성암이다. 흑운모편마암류는 소백산편마암복합체라는 학명으로 분류된 것의 일부로서 흑운모성분과 엽리가 거칠게 들어 있다. 여기서 엽리란 변성암의 가장 특징적인 조직으로 변성광물이 원래의 판상구조에서 잘 나타난다. 변성작용의 흔적이 비스듬하고 나란하게 입혀진 것을 말한다. 이러한 암석들은 함평천과 고막원천 유역, 무안 몽탄일대와 나주 동강일부, 만봉천 상류부근에 분포한다. 화강질편마암은 화강암이 변성된 것으로 화순 이양 청풍일대의 지석강 상류와 화순천 일부, 황룡강 중상류 일대에 있다.

고생대 석탄기 변성퇴적암류는 학명으로 우산리층으로 정해졌는데 지금으로부터 3억5천만년 전 생성된 것이다. 주로 엽리구조에 있어 편마암보다 덜 거칠은 편암류, 엽리구조는 거의 없고 사암이 오래되어 매우 단단하게 된 규암, 석회암이 지각변동을 받아 변질되어 백색의 결정질을 가진 대리석과 같은 결정질석회석 따위가 분포한다. 이것들은 지석강 상류에 좁게 나타난다.

중생대 쥐라기의 대보화강암류는 편마상 화강암과 흑운모화강암류로 지금으로부터 1억8천만년 전에 생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지층이 영산강 유역에서 가장 넓게 나타나며 화성암인 화강암이 대규모 지각변동을 받아 매우 깊은 곳에서

올라와 침식에 비교적 약한 편이다. 특히 철분과 장석성분이 많은 흑운모화강암은 붉은 색을 띠어 전라도황토라고 일컫는다. 이 층은 심층풍화되어 있어 한반도가 한 때 아열대성 기후였을 것이라는 짐작을 가능케 해 준다. 석영성분은 강으로 나아가 모래가 되어 영산강가의 경관을 한층 아름답게 해주고 있다. 편마상화강암류는 영산강 상류인 담양 용면과 무정면일대에 분포하며 학명으로 순창화강암으로 불리운다. 흑운모화강암류는 중류일대에서 폭 15 20킬로미터 안팎, 연장 40킬로미터의 큰 쟁반모양(底盤狀)의 끼어든(관입) 화강암체로 나타나며 영산강 중류와 황룡강을 따라 해발고도 100미터 내외의 구릉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대보화강암류는 북북동-남남서의 분포방향으로 영산강의 모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암체이다. 바로 영산강의 가장 큰 골짜기를 마련한 셈이다.

중생대 퇴적암류는 백악기층으로 지금으로부터 1억3천만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주로 호수와 강에서 쌓인 육상퇴적층이다. 학명으로 경상계신라통유천층 밑과 하양층에 속해 자갈이 굵은 역암, 모래가 굵은 사암, 매우 가늘은 흙이 굵은 혈암(세일), 화산재와 용암이 굵은 응회암, 유문암 따위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지석강과 황룡강 중상류, 화순탄전일대, 담양댐 상류 등지에서 나타난다. 용암이 굳어 생긴 화산암류는 안산암과 유문암이 있는데 전자는 무등산일대, 후자는 황룡강 상류 입암산 부근과 고막원천, 함평천 중상류 및 지석강 대초천 중하류에 분포하여 높은 산지나 뽕족한 봉우리를 만들고 있다. 반려암, 설록암, 석영반암으로 구성되는 불국사관입암류는 병풍산일대에 분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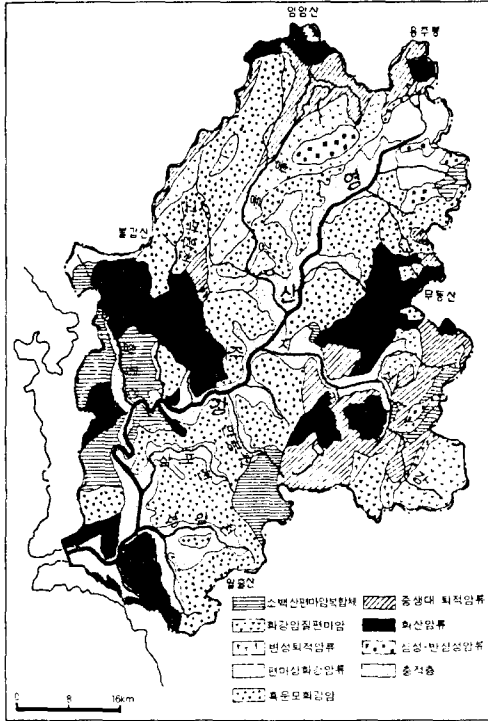
신생대 제 4기 층적층은 빙하시대 이후 지금까지 쌓인 땅층으로 영산강의 큰 골과 샅골을 따라 마치 살처럼 붙어 있으며 앞선 시기의 지층을 부정합으로 덮고 있다. 여기서 부정합은 어떤 지층이 퇴적된 뒤 그것이 침식을 받은데에 다시 쌓여 새로운 땅층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층적층의 두께를 농업진흥공사와 건설부에서 주

산강 유역의 생김새 변화와 뱃길과 끈을 대고 있다.

2) 고영산분지라는 장방형 움푹지가 목포로 목을 내고...

영산강은 그동안 소백산맥이라고 불려왔던 백두대간의 호남정맥(湖南正脈)과 이 멧밭에서 나간 노령산맥으로 알려진 영산북기맥이 울타리가 되면서 북동~남서방향으로 흘러가다 남쪽 영산 남기맥에서 나온 물을 받아 한 몸이 되어 목포로 나간다. 어쩌면 큰 한몸을 이룬 길목이 된다 하여 목포라는 이름이 나왔는지도 모른다. 즉 남서부만 열리고 모두 산으로 둘러쳐서 학명으로 고영산강분지(古榮山江盆地)인 장방형 움푹지를 형성하고 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장성(황룡강)·담양(본류)·화순(지석강)을 상류로 보고, 광주·나주·함평을 중류, 무안·영암·목포를 하류로 본다. 물줄기의 방향은 본류를 중심으로 북쪽에서 합류하는 풍영정천, 황룡강, 평림천, 장성천, 문평천, 고막원천, 함평천 등은 북동~남서방향이나 북~남방향의 흐름을 보인다. 남쪽에서 합류하는 오례천, 증암천, 광주천, 지석강, 영산천, 봉황천, 만봉천, 삼포천, 영암천은 남동~북서 방향 또는 동~서방향의 흐름을 나타낸다.

유역 중 가장 높은 봉우리는 무등산(1,187m)이고, 50미터이상의 땅은 1.2%에 불과하다. 200미터 이상은 19.5%이고 100m 이하의 땅은 58.2%를 차지한다. 유역의 평균고도는 104.6미터로 지석강이 169.8미터 가장 높고 고막원천이 85.1미터로 가장 낮다. 유역의 경사도는 40도 이상은 18.6%, 10도 이상은 56%이고, 5도 이하는 31.55%이다. 총 하상경사는 3.09%로 매우 완만한 하상중단면 모습을 보인다. 유역의 하천밀도는 160m/km로 한강 130, 낙동강 135에 비해 고밀도이다. 담양댐 지점 하류에서 증암천 합류지점까지는 망류하도(網流河道)가 발달하고 증암천 합류지점에서 무안 몽탄 나주까지의 구간에는 모식적인 곡류하도(曲流河道)가



영산강 유역의 지질구조

관한 지하수개발과 하천 개수 및 하구둑 건설 당시의 시추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담양지역이 5미터 안팎, 황룡강과 합류되는 송정부근이 12미터, 나주 다시면 죽산리 부근은 18.6미터이고 하구둑에서는 20미터쯤 된다. 경북대 조화룡 교수는 금강하구에서 31미터, 상류 10킬로미터 지점은 20미터 깊이까지 층적층이 있음을 확인했다. 덧붙여 만경강의 경우 하구에서 20킬로미터 상류지점이 15 19미터 깊이의 퇴적층을 조사한 바 있다. 이는 해수면변동과 밀접하며 영

발달한다. 다만 무안 이산리 늪(어오지) 곡류부근은 자유곡류가 아니라 산지에 의한 감입곡류이다.

영산강 유역의 연평균 기온은 광주 13.1도씨, 목포 13.6도씨이며 연평균 상대습도로는 광주 73%, 목포 75%, 연평균 증발량은 광주 1240.7밀리, 목포 1204.9밀리이며, 강우일수는 광주 125.2일 목포 121.1일이다. 유역의 평균강수량은 1305밀리이며, 물의 총량은 36억톤 쯤 된다. 월별 강수량 분포를 보면 6~9월까지의 강우량이 광주는 전체의 62.9%, 목포는 58.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강우량의 하계집중현상이 뚜렷하다. 총유출량 18억톤 중 10억톤이 이때 바다로 나간다. 따라서 평상시 물을 1로 보고 그 배수를 나타내는 하상계수도 한강 393, 낙동강 372, 금강 298에 견주면 1:682나 되어 매우 큰 편이다.

### 3) 영산강이 빚어낸 걸작 산과 맛살 들

영산강은 목포 유달산(230m)으로부터 북쪽으로 영광 금산(305m)을 거쳐 북동쪽으로 장성 입암산(632m)으로 치달리고 나서 남동쪽 담양 추월산(731m)으로 내려서 다시 용추봉(587m)을 거쳐 화순 중조산(580m)까지 남쪽으로 내려와 서쪽으로 향하면서 영암 월출산(809m)을 거쳐 영암 삼호 용당리에 있는 대야산(170m)까지 한번도 그 맥이 끊어지지 않는

멧밭(龍)에 둘러싸여 있다.

이러한 산줄기들은 적어도 6천만년 전에 그 틀이 짜여지고 나서 이후 지금까지 세월동안 눈·비·바람에 깎이고 닳아져 오늘날의 모습을 자아내고 있다. 깊은 땅속에 있다가 갑자기 지각이 용틀임(火山)하여 나온 것도 있고, 서서히 땅판이 들리는 작용(응기)에서 태어난 것도 있다. 모두 풍화와 침식에 강한 부분은 봉우리로 남고 약한 부분은 바위덩어리, 자갈, 모래, 흩이 되어서 계곡, 강가, 들판, 갯벌땅으로 옮겨져 있다. 땅 모양도 불교에서 말하는 인생처럼 윤회한다고 한다. 유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말이다. 영산강의 물줄기는 매우 오랫동안 감싸고 있는 멧밭들을 씻어냈기 때문에 노년기에 가깝다. 대개 경사가 완만하고 모양이 부드러워 온화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온대기후의 식생인 혼합림이 덮고 있어 한층 더한다. 그러나 화산 작용에 따라 처음부터 높아진 부분이나 매우 단단한 암석으로 되어 있는 곳은 뾰족해 덮고 있는 흩이 다 쓸려내려 대머리가 된 것도 있다. 담양 추월산의 보리암, 장성 백암산 백학봉이 본보기이다. 또 봉우리에 흔들바위가 된 토르(Tor)지형이나 돌기둥이 된 주상절리, 움푹파여 가마솥을 이루고 있는 용식풀 등의 지형들이 나타난다. 지형학에서 잔구라고 일컬어지는 무등산과 월출산의 경우에서 많이 볼 수 있다.